

## 학생자 위주의 기독교문학 수업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Christianity and Literature" : A Student-Oriented Course

김명석(명지대 교수)

1. 머리말
2. '기독교와 문학' 과목 개요
  - 1) 기독교문학의 이중적 목표와 범주
  - 2) 수강 대상
  - 3) 강의 계획 수립
  - 4) 수업 시간의 운영
  - 5) 학생 중심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교수법 개발
  - 6) 평가
3. 강의 사례 보고
4. 맺음말

Abstract

by Myung-Seok Kim

This paper explores a new way for the education of Christian literature by introducing a case study of the class “Christianity and Literature.” It aims at a new method of reading Christian literature for general readers, Christian or non-Christian, as well as students attending the class.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Christian literature’ is defined in a broad sense, which includes literary works with Christian points of view and whatever books leading people to the ultimate concern of human existence, let alone those works with Christian subjects and characters, and those for missionary purpose.

Three specific cases of the class proceedings are analyzed in this paper: “An Alpine Region” by Seungwoo Lee, “The Emptied Place” by Sungil Kim, and the review of musical “The Play” are the subjects. Major points of the class are as follows:

The class was proceeded on the basis of active participation of the students. Discussion was the chief tool.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small groups, each of which conducted presentation and presided the class, taking turns. To strengthen the student-oriented feature of the class, some minutes were allotted to prayer, praise and association among students. Exams and assignments were intended as extension of learning, and some parts of the evaluation were conducted by students themselves.

The final goal of Christian education is to bring students into awareness of God as our Lord, who presides our whole lives. Christian literature poses questions and searches for answers in the world of Christianity, making people realize the love of God and experience the amazing ability of God as our Creator. The

“Christianity and Literature” course can be possibly one of the best classes which serve the purpose. And enhancing the voluntariness of the students, as was done in the “Christianity and Literature” course, and is emphasized in this paper, plays an important part for the success of the class.

## 1. 머리말

한국에서 기독교문학을 연구하고 또 교육하는 것은 그 자체가 희귀하고 귀한 일이다. 서점에서 기독교문학 작품을 구하려면 문학서적코너가 아닌 종교 관련 서가를 찾아야 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전문서점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기독교문학은 문학연구의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고, 기독교문학교육은 정규 문학 교과과정에서는 소외되어 있다. 기독교문학이란 과목은 기독교대학을 표방하는 곳에서조차도 문과대학의 전공과목이나 인문학 또는 예술 계열 교양과목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간혹 신학과 교과목이나 기독교계통 교양과목으로 일부 개설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실상을 따져보면 기독교문학이란 과목명과는 달리 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성경의 이해나 서양 기독교교전 강독 등이 주를 이루며, 일반적인 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은 배제된 경우가 많다. 문학 텍스트를 다루는 경우에도 주로 서양문학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 기독교문학 작품을 중심에 두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sup>1</sup>

개설 목적에 따라 ‘기독교문학’이란 과목의 성격이 다르게 파악될 수

- 
1. 이는 헬레니즘과 함께 헤브라이즘을 그 저변에 깔고 있는 서양문학의 오랜 전통과 축적된 문학작품의 양과 질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서구 신학이 한국 기독교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자칫 기독교문학 역시 서양의 전유물처럼 인식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로 보편성을 표방하는 신학과 문학 역시 서양 중심의 관점이 보편적 담론으로 위장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국수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인간과 세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독자들의 서양문학과 한국문학에 대한 경험에 균형이 필요하며 이는 기독교문학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연구자와 교수층의 불균형에 있는데, 예를 들면 필자가 속한 한국 문학과 종교학회 역시 대부분 외국문학 전공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기독교문학에 대한 관심의 촉구가 요망된다.

도 있겠으나, 그 이면에는 강의담당자에 따라 같은 이름의 과목도 성격이 달라진다는 문제도 숨겨져 있다. 기독교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가 아닌, 신학전공자중 문학적 소양과 관심이 있다면 맡을 수 있는 과목 정도로 이해하거나 기독교인인 문과대교수가 적당히 맡을 수 있는 과목 정도로 생각하면 기독교문학은 하나의 교과목으로 제대로 발전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과목명만 보고 문학에 대한 기대로 수강선택을 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막상 첫 강의를 들어보고 생각과 달라 수강 변경하는 경우나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강신청자가 감소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 신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기회와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어렵게 개설한 과목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필자가 근무하는 명지대학교의 교양선택과목인 '기독교와 문학' 수업을 사례로 기독교 문학 수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구된 것으로 일반적인 논문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일종의 강의에 관한 보고서라고 하는 편이 옳다. 다시 말하면 문학연구로서 작가나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강의'에 대한 연구이면서 동시에 학생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학의 독자인 크리스천이나 일반인들에게 기독교문학 읽기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진 논문이다. 표제에 붙인 '학습자 위주'란 수식어는 최근에 부각되는 학습자 위주의 교육 이론의 성과를 기독교문학 교육에 접목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연구자의 교육학 이론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충분히 적용되지 못했지만, 강의자 위주의 주입식 강의가 아닌 학생 중심의 강의를 지향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그대로 살렸다. 연구논문으로서 방법론적 미비를 지적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논문으로 이해해 주기 바라며, 이 논문이 기독교문학 교육의 완성이 아닌 진행형의 과제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2. '기독교와 문학' 과목 개요

### 1) 기독교문학의 이중적 목표와 범주

문학연구자로서 기본적으로 필자는 '기독교와 문학' 이라는 과목을 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학교에서는 기독교대학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과목을 기독교 영역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문학교육의 목표와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목표 양쪽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단순히 문학의 하위 장르로서의 기독교문학으로서 접근하기보다는 일종의 학제적인 성격의 강의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독교문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독교문학평론가 내부에서도 일치된 결론이 없는 논란이 분분한 부분이다. 임영천은 '기독교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따르는 논란을 크게 네 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다. 첫째, 어느 문학 작품의 제재(소재)가 기독교 세계와 관련된 경우, 둘째, '독자'를 중심으로 볼 때 기독교 신도를 겨냥하여 씌어진 작품의 경우, 셋째,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 자신이 기독교 신도인 경우, 넷째, 작가에 의해 생산된 '작품' 자체 안에 기독교 세계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기독교문학은 이론적으로 외부세계, 독자, 작가, 작품 자체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그 자격(성립)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종합적이며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sup>2</sup>

이때 주목할 것은 기독교 문학과 독자 중심이론과의 관계를 언급한 부

---

2. 임영천, [기독교문학 논의의 관점에 대하여], 한국기독교문학평론가 협회, [기독교 문학 평론] 창간호, 2002.6. 95-98쪽.

분이다. 임영천은 김동리의 [무녀도]와 [올화]를 예로 하여 사머니즘 세계의 우월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서구 전래의 신흥 종교인 기독교와 대립시킨 작가의 의도와 달리 크리스천 독자는 대체로 같은 신도인 육이 또는 영술이 믿는 기독교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분석하면서, 작가가 독자에게 교시하려는 의도와 독자의 실제적 반응은 전혀 상반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관점을 기독교문학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문학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은 결국 그 문학의 독자라는 사실이다. 학생이자 독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문학적 관심과 기독교적 관심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독교 문학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잡아서는 안된다는 점과 문학작품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 못지 않게 독자들의 주관적인 독서체험의 가치를 살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 말하는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적 소재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성경속 인물이나 기독교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 또는 기독교인인 작가가 의식적으로 선교적 목적으로 창작한 협의의 기독교 문학이 아닌 표면적으로는 기독교를 다루지 않지만 그 안에 기독교적 세계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나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일반 문학 작품에까지 범주를 넓혀 광의의 기독교문학으로서 접근한 것이다.

단 다루는 작품 선정에 있어 의도적으로 한국 작품을 위주로 하였다. 한국에서 기독교문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기독교문학 작품을 열심히 써야 하고,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문학의 독자층이 두터워져야 한다. 좋은 작품이 있으면 독자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마찬가지로 독자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에서 작가가 글을 쓸 의욕을 얻기는 힘들다. 물론 문학이란, 이른바 대중문학

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작가적 사명을 갖고 고독한 작업을 하는 것이며, 특히 기독교문학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 산물이자 작가의 문학적 간증이라면 독자를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수준 있는 독자가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문학 수업은 기독교문학의 독자를 양성하며, 이러한 독자를 저변으로 기독교문학 나아가 한국의 기독교문화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 2) 수강 대상

주지하다시피 기독교 대학에서 졸업을 위해 필수로 수강하도록 지정 한 교양과목 중 채플이나 기독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은 기독교인 이나 아니냐에 따라 크게 다르다. 심지어 크리스천 학생들조차도 때로는 기독교 과목을 필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 내심 반발하며 선택과목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기독교와 문학' 과목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인이자 문학에 관심이 많은 이들로 수강생이 짜여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그 수준은 제각각이며 의외로 비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어 강의의 눈 높이를 결정하는데 신중을 요한다.

개강 후 첫 몇 주간 파악해본 결과 수강생들 중에는 교회에서 일찌감치 세례를 받고 교사나 성가대 등에서 봉사하거나 교내외 선교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학생에서부터 기독교대학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학생, 학기초에 우연히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한 신입생 몇 명이 선배의 권유로 한꺼번에 수강하게 된 경우까지 신앙경력 상으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였고, 개중에는 기독교에 약간의 관심은 있으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도 교양과목 학점이수를 위해



자의반타의반으로 신청한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 사이에서 문학에 대한 기본지식과 관심 또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강 대상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기독교문학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본다. 기독교인이 아닐수록 그들에게 기독교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운영하거나 커리큘럼을 짤 때 수강생을 기독교인만으로 전제하거나 평가 등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배려했다.

### 3) 강의 계획 수립

‘기독교와 문학’ 수업을 강의식이 아닌 학생 중심의 토론식 수업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원칙이 섰음으로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은 학점 따기 쉽고, 강의 부담이 적은 과목이라는 편견 아닌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위주’라는 것을 그러한 학생층의 편의를 봐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생들 자신이-교수뿐만 아니라-강의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한편의 작품에 대한 주체적인 읽기 과정이 생략된 채 교수의 설명에 의존하는 문학 수업이 되기 쉬운 것은 기독교문학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자칫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깊은 영적 체험과 결단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던 식의 태도로 수강한다면 문학을 통해 기독교에 접근하는 의의를 상실할 것이다.

기존의 문학강의는 이론적 측면에 치중하여 정작 문학의 독자인 학생들이 작품과 멀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최대한 작품과 친숙하게 만들 수 있는 교재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적당한 교재를 찾을 수 없었

다. 따라서 차라리 작품들을 찾아서 읽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작품들을 일일이 찾아 구입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이었다. 다행히 기독교 문학 작품들을 모아놓은 선집이 몇 권 눈에 띄어서 그 중에서 [다시 부활을 기다리며](윤컴, 1998)이란 책을 교재로 선정하고, 그 책에서 빠진 몇몇 중요한 작품만 따로 보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책에 수록된 황순원의 [그], 현길언의 [사제와 제물], 조성기의 [만화경], 김성일의 [비워둔 자리], 백도기의 [달구질 소리], 이승우의 [고산지대]와 같은 소설 여섯 편과 윤동주의 십자가를 비롯한 시 18편을 다루기로 했다. 한국 기독교 문학의 대표작은 대부분 장편소설인데, 제한된 기간 중에 제대로 다루기 힘들므로 이들 작품은 발표를 통해 간단히 소개하기로 했다. 그밖에 기독교 문학은 아니지만 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 박지원의 [허생전],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이남희의 [허생의 처], 김영현의 [별] 등은 개별적으로 구해서 보도록 했다.

개강 전에 강의계획서를 준비하면서 미리 학생들과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기독교문학 작품으로 시와 소설뿐만 아니라 교재에 없는 인접한 장르인 영화나 연극,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등도 일부 포함시켰다.

남들이 쓴 글을 자꾸 읽게만 만드는 것은 문학 수업이 해야 할 일의 절반만 이루는 것이다. 문학 창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읽기'에 할당된 만큼의 절반이라도 '쓰기'에 할당해야 할 것이다. 남들의 말을 듣고 글을 읽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인식이 이루어지지만 거기서는 얻을 수 없는 깨달음을 글쓰기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다. 글쓰기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자아성찰적 글쓰기를 통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자아의 참모습을 발견한다. 일주일에 세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텍스트의 읽기는 수업에 앞서 각자가 준비할 몫으로 정한

것처럼 얼마 안되는 수업 시간을 작문시간에 할당하는 것은 낭비이다. 그렇다고 수업 외 시간에 과제를 자주 내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수업 중에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생각의 초점을 밀도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퀴즈를 매시간 20분 정도씩 실시하였다. 족지 시험도 시험이기에 학생들은 긴장감과 집중력을 발휘하며, 시험이면서도 진짜 시험과는 달리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하다.

또한 무조건 많이 쓰기만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글을 발표하여 자신의 생각에 대한 남들의 의견을 묻고 같은 주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수십 명의 수강생의 글들 중 과연 몇 편이나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몇 편을 골라 내기 위해 결국은 다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별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작품을 고르고, 그들이 선택한 글들 중 한편씩만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했다. 조별로 돌려읽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듯이, 임의의 답안지 몇 장만 뽑아서 강평해 주는 방법을 택하였다. 대신 나머지 글은 수업중 발표 대신에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에 있는 강의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법을 썼다.

한편 조편성은 27명이었던 강의인원을 네 조로 나누어서 각조가 6-7명 선에서 구성되도록 하였고, 문학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가 아닌 '동인'으로 지칭하도록 했고, 조이름에 번호를 붙이는 방식을 배제하였다. 조원들도 서로를 문학활동을 위해 모인 동인으로 대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조는 '부활', '만남', '구름', '열매' 등의 이름으로 동인을 구성하였고, 종강 무렵 같은 이름의 동인지들을 엮어내었다.

#### 4) 수업 시간의 운영

‘기독교와 문학’ 수업은 3학점 과목이어서 이에 따라 50분 수업 세시간, 총 150분의 수업이 속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간표 배정에 따라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도 지칠뿐더러 강의담당자 역시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계를 느낄 것이며 체력적 부담도 크다.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는 큰 틀은 학생들의 참여를 높여 토론식 수업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시간배분도 절반 내지 3분의 2를 학생들에게 맡도록 했다.

1교시에는 주로 시작하자마자 당일에 다룰 문제를 놓고 20분 내지 길면 30분간 그날의 발표조 학생들이 미리 준비해온 문제로 퀴즈 형식의 글쓰기 시간을 갖는다. 남은 시간은 주로 미리 정한 발표 순서에 따라 학생들의 조별발표 시간을 30분 정도 배정하였다.

2교시에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20-30분 조별로 흩어져 토론 시간을 가진 뒤 나머지 시간에 다시 모여 그 내용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발표하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게 했다. 이때 전체 진행은 역시 앞서 정한 발표조에서 맡는다. 강의실 내에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고, 산만한 인상도 주었지만 토론이 이루어지는 단위를 세분화수록 학생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에 왔으면 여러 사람 앞에서 한마디라도 자기 생각을 말하고 갔을 때 그날 수업에서 자신이 뭔가를 배웠다는 느낌도 들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자신감도 길러지기 마련이다. 학생들은 지루해지기 쉬운 교수의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발표에 흥미를 느꼈고, 그보다 좀더 자유로운 조별 토론에 즐거운 표정으로 열중하였다. 한편 조별 토론 내용을 발표할 때는 매주 다른 사람이 발표하도록 했는데 이는 언변이 좋은 몇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누구나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질의 토론은 종종 시간이 넘도록 활발하고도 진지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그날의 텍스트를 미리 읽어오고, 퀴즈 시간에 그날 토론할 문제들에

관해 각자 예비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조별 토론을 통해 일차적으로 걸러진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토론에 교수가 함께 끼어드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철저히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하다. 이상적인 경우는 교수 역시 평등한 토론자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밝히고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생각의 진전을 유도하는 영뚱한 발언을 할 필요도 있었다. 반면 토론 문화에 익숙지 않은 한국의 교육적 풍토에서 교수의 발언은 자칫 학생들에게 문제의 정답 또는 최종적 결론으로 비춰져서 학생들 스스로의 더 이상의 토론을 방해하기도 하며 설사 반대의견이 있는 학생도 침묵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기초에는 교수의 토론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하여 토론이 중단되거나 답보상태에 빠질 때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도록 했다. 그리고 학기 중반 이후에 학생들이 스스로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을 때, 즉 교수의 의견에도 반대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학생들이 등장하게 되었을 무렵에는 자연스럽게 토론에 동참하기도 했다.

3교시에는 강의담당교수가 그날 발표에 대해 강평하고, 학생들의 토론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해주면서 강의를 정리한다. 그리고 끝으로 다음 시간 강의 및 토론을 내용을 예고하며 준비시킨다.

강의 후에는 발표조 학생들을 모아 전체 학생 앞에서 말하지 못한 발표나 진행상의 잘잘못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직접 출제된 퀴즈를 채점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전달한다. 한편 다음주에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조원들을 소집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 5) 학생 중심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교수법 개발

‘기독교와 문학’ 수업은 일반적인 문학수업과 다르게 꾸며보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강의의 기술적 문제에 앞서, “어떻게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했고, 그에 따라 기독교적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했다. 기독교적인 소재로 학습내용을 삼는 것, 일반적인 주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것은 물론이고 그밖에도 기독교교육의 특성이 드러나는 수업이 되도록 방법을 찾았다. 거기서 나온 것이 수업을 통해 기도와 찬양,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 ① 기도

신학대학에서는 매 강의시간 시작 때 기도를 하는 관례가 있다. 교수나 학생들 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수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학생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수업에 임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반 기독교대학에서 교양과목인 ‘기독교와 문학’에는 수업 전후의 관례적 기도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생략하고, 강의 내용 전개상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을 갖고 학생 중에서 또는 담당교수의 기도로 마무리했다. 또 수업시간에 다루는 텍스트에서 감동적인 기도장면이 나오면 대표가 읽도록 하고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을 감상하였다.<sup>3</sup>

그 외에도 퀴즈를 대신하여 ‘화살기도’라는 이름으로 간단한 기도문 작성 시간을 가졌다. 화살기도란 말 그대로 일상 속에서 화살처럼 스쳐

---

3. 예를 들면 6주차 강의에서 다룬 현길언의 [사제와 제물]에서 작중상황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 작품에 나오는 농성 장면을 읽으면서 노동자들이 부르는 [우리 승리하리라]를 학생들과 다같이 불렀고, 이어지는 주인공 선우백 목사의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렸다.

현길언, [사제와 제물], 황순원 외, [다시 부활을 기다리며], 윤컴, 1998, 47쪽 참조.

지나가는 생각들을 담은 기도이다. 이를테면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맡기오니,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마음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당신 빛으로 채워 주소서”라며 커튼을 걷고, “주님 제 입술을 당신께 맡기오니, 깊이 생각하고 말하게 하소서”하면서 이를 닦고, 머리 감을 때는 “주님, 잠נם을 씻어 주시고”, 세수할 때는 “주님, 당신 얼굴을 제게 비주소서”, 그리고 “주님, 겸손과 정결의 옷을 입혀 주소서”하며 옷을 입는다. 하나 더 예를 들자. 김을리며 “이를 먹는 이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 주시며”, 흰밥을 놓으며 “순결한 영혼이 되게 하시며”, 시금치를 놓으며 “싱싱한 믿음과”…… 김밥을 말며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며”, 김밥을 자르며 “나눔을 살게 하소서”. 이는 김밥을 쌀 때의 기도말이다. ‘캠퍼스 구석구석에서도 빗발치듯 쏟아 올린 화살 기도를 듣고 싶었다. ‘기독교와 문학’ 시간에 원고지를 놓고 기도문을 쓰게 한다. 교문을 들어서며 “주님, 내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소서”, 통학버스의 빈자리를 찾으며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출석을 부를 때 “주님 부르실 때 항상 그곳에 있게 하소서”, 지우개로 칠판을 지우며 “나의 죄도 깨끗이 지워주소서”, 부러진 샤프심을 새로 꽃으며 “내 인생을 이렇게 신중히 살게 하소서”, 강의실에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주님의 음성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리게 하소서”…… 10분이 라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이 투영된 화살기도문을 작성했다.

학교 가는 길을 걸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학교 정문을 들어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산에서 살게 하소서

수업 시간에 들리는 음성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힘이 되게 하소서

---

4. 김옥례, [엄마의 화살기도], 다솜, 1999.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을 되짚어보게 하소서(김세권, 학생)

틀에 박힌 형식적 기도에 너무 익숙해진 예배시간, 간절한 목소리로 기원하면서도 속으로는 먼저 선을 그어버리곤 하는 믿음 없는 기도 생활과 비교할 때 학생들의 아이들처럼 간단하고, 욕심 없고, 소박한 간구에서 오히려 깊은 신뢰를 발견하게 된다.

## ② 찬양

신앙생활에서 기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물론 찬양을 들 수 있다. 신앙시와 같은 형태의 문학 작품은 결국 작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소설 작품 속에 삽입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작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9주차 강의에서 다룬 백도기의 [달구질 소리]에서는 거두리 참봉이란 이의 이름 내력이 나온다. 그가 거두리라는 별명이 붙게 된 찬송가 260장에 나오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견을 때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가사를 따라하면서 학생들은 작품 속 세계로 들어갔다. 강의실에 피아노가 있었기에 수강생 중 음악학부 학생에게 반주를 부탁하고 따라 부르면서 작품 속의 상황을 재현하였다. 또한 작품의 제목인 ‘달구질 소리’는 “……예수씨가 하신 말씀 / 모래 위에 집 지으면 / 창수 날 때 무너지니 / 어여루야 달구 들어 / 어이 여차 방아 쪼세. // 반석 같이 터를 다져 / 풍우 대작 한다쳐도 / 끄덕없는 집을 짓세. / 어여루야 달구 들어 / 어이 여차 방아 쪼세……”와 같은 가사를 지닌 노동요에서 나온 것이다. 요즘 활발히 창작되는 국악찬양과 비슷한 풍의 이 노래 가사에 발표를 맡은 조에서 분위기에 맞



취 창의적으로 곡을 붙여 함께 부르는 노동요로 재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독자인 학생들이 작품 밖에서 작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참여함으로써 흥미를 갖고 강의에 임하며, 작품 서사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따져보고, 등장인물의 생각과 행동에 공감하면서 작품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다.

그 외에도 찬양의 노랫말을 쓰고, 서툴지만 스스로의 가락에 맞춰 곡을 붙여 자신만의 복음성가 또는 CCM을 만들어보도록 했다. 자유시의 등장 이후 시를 읽기만 하는 독자들에게는 시란 본디 노래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자신의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체험을 갖도록 한 것이다. 과제를 부여한 후 작시는 가능하겠지만 음악학부생이 아닌 다음에야 얼마나 되는 학생이 노래로 완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달리, 많은 학생들이 반주 없는 노래라도 자신의 곡조로 부르는 장면은 듣는 이들에게 감동적인 체험이었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학생은 노래에 반주를 곁들였고,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은 악보를 완성하여 제출하였다. 학생들은 비파와 수금을 울리면서 새 노래로 주를 찬양했다. 조명을 낮추고 강의실 앞에 무대를 꾸몄는데, 허술한 무대지만 이 아마추어 가수들은 열심히 노래를 불렀고, 자신이 직접 노래를 만들 수 있고, 청중들이 그 노래를 듣는다는 사실에서 온 감격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문학적, 종교적 체험이 되었다. 그중 음대생의 피아노곡과 공대생의 국악찬양 두 편을 소개한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시리라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리라(손정희, 학생)

어야디야 예수믿고 어야디야 천국가세  
어야디야 우리주님 어야디야 다시오면  
어야디야 눈물없고 어야디야 슬픔없는  
어야디야 세상되네 …… (김두언, 학생)

### ③ 나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하나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한다. 브루멜른은 학습공동체를 조성하려는 노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교사들은 학생이 보살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풍부한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 학습을 학습공동체로 조성하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해야한다. 학습이란 아이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을 배우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서 일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어려움을 겪고, 배우는 장소가 될 수 있다.”<sup>5)</sup> 이는 학습이 정해진 초중고교의 경우를 상정하여 나온 것이지만, 대학의 클래스 역시 정해진 시간과 공간 내에서 임시적으로 하나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한다. 매주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동일한 교수, 교재를 통해 수업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학생들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되지만 한편 성적 평가를 염두에 둔 경쟁심리 또한 내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한 학기간 ‘기독교와 문학’을 함께 수강하는 학생들은 동일한 학습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다같이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이다. 따라서 이 수업의 구성원들에게 일종의 공동체 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학습과 관련된 목표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다.

---

5. 해로 반 브루멜른,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IVP, 1996, 102쪽.

문학에 관심 있는 크리스천으로 구성된 이 학습공동체를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동인을 결성하고, 공동으로 발표, 진행, 문집 편집 등의 작업에서 각자의 역할에 담당하면서 협력하는 가운데 각각의 그룹내 구성원은 보다 친밀해졌다. 그들은 학습을 위한 실리적 목적 이외에도 자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삶과 신앙생활에도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자신들의 능력과 관심을 나누게 되었다.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담당교수의 홈페이지에 개설한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글과 생각을 나누기도 했고, 동인에 따라서는 스스로 커뮤니티를 결성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다.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수업 시간에 함께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강의실 밖 잔디밭에서 편안한 만남을 갖기도 했고, 문화센터 공연현장을 찾아 함께 답사를 다녀온 것도 학생들간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발표를 마친 동인들은 교수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점심을 같이하며 밥상공동체를 만들었고, 축제 기간 중에는 특별히 가칭 오병이어 잔치를 열어 강의실에서 준비해온 빵과 포도주스, 그리고 약간의 포도주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조에서 준비한 동인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글 속에 담겨진 서로의 아픔과 소명을 이해하며 한 학기간의 나눔을 정리하였다. 브루멜른이 말한 바처럼, 지금 여기에서 학생들의 소명을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학생들이 동일한 순종을 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과 접촉하도록 도우며, 학급의 중심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sup>6</sup>

## 6) 평가

이상적인 수업은 공정한 평가로써 완성된다. ‘기독교와 문학’ 수업은

---

6. 해로 반 브루멜른, 앞의 책, 20쪽.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했는데, 평가 비중은 시험 30%, 수시평가 30%, 과제 30%로 정했다.

### ① 수시평가

수시평가는 성적평가의 비중이 있어서 시험보다 낮춰 잡았지만 실제 강의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요소가 되었다. 수시평가의 목적은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보다는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매시간 수업 시작과 함께 쪽지 시험이라는 형식의 간단한 퀴즈나 작문을 실시하였다.

이때 퀴즈는 지식을 평가하기보다는 다룬 내용에 대하여 발표나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자신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신앙시를 감상하는 시간에 작품 분석에 앞서 퀴즈란 형식을 빌려 자신의 짝막한 느낌과 생각을 정리하는 순간은 금요일 오전 1-3교시인 강의 시간의 특성과 결합하여 고요한 묵상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특히 기독교문학의 경우 이 시간은 '경건의 시간(Quiet Time)' 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영적 훈련의 계기가 된다. 학생들은 각자의 답안을 번갈아 읽으며, 작가가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과 그 순간 독자의 영혼을 두드리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 전체에게서 이 같은 경험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것은 이상적인 경우이나 가능한 일이다. 사람에 따라 내밀한 체험의 깊이는 달라질 것이다. 대신 퀴즈는 일차적으로 그날 다룬 작품을 학생들이 미리 읽어오도록 만든다. 문학 수업을 토론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정해진 발표자들 이외의 청중이 작품을 읽어오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하다. 발표자들이 준비한 내용을 수동적으로 듣거나 줄거리 파악에 급급하게 되며, 교수의 강평 속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만 찾아 기록

하느라 바쁘게 된다. 미리 읽어온 사람만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장치로 퀴즈를 실시하고 특히 매번 첫 문제로 줄거리를 요약하게 하여 독서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줄거리 요약은 단순히 내용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가 그 작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적극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나머지 문제들도 작품에 대한 지식을 묻기보다는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을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자의 생각을 미리 정돈해두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조별 발표가 있는 날은 퀴즈의 출제도 그날 발표를 맡은 조에서 의논하여 정해오도록 했고, 문제 출제 의도와 평가기준을 제시하면서 직접 채점까지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퀴즈를 통해 출석률을 높이고 반강제적으로 예습을 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 스스로 토론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수시평가제도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다. 퀴즈를 매주 실시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채점 부담으로 강의담당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운동선수의 능력을 훈련이 아니라 시합에서 평가하고 훈련과정에서는 경기결과가 아닌 연습에 대한 성실성을 위주로 평가하듯이, 퀴즈도 각 문제의 답안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 불합격 정도의 구분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작문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모든 글을 꼼꼼히 읽을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과거의 작문 수업이 그런 것처럼 글을 잘 쓰려면 무조건 많이 써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백일장 식으로 주제를 하달하고 우수작 몇 편을 가리고, 나머지는 미처 첨삭도 해주지 못하는 무책임한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는 점수를 매겨 학생들을 평가할 뿐 다수 학생들의 실제적인 글솜씨 향상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평가자는 평가자대로 쫄쫄매고 반대로 학

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킨 결과 과목에의 흥미를 감소시키며, 장기적으로 수강자수 또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서로의 글을 비교해보면서 좋은 작품과 나쁜 작품을 가려내고, 뽑힌 작품들에 한해서 강평해줌으로써 강의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 스스로의 미적 판단력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토론 발표일의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발표자들이 출제에서 채점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도 도움이 되었다. 궁극적으로 강의담당자가 할 일은 학생들 글의 좋고 나쁨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여 학생들을 분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좋은 글과 나쁜 글을 골라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일이다. 이 점에서 퀴즈를 비롯한 수시평가제도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

## ② 시험

시험은 기말고사 1회를 실시했는데, 평가적 목표 이외에, 시험시간도 전체 강의의 일부로서 이전 강의에서 생각할 과제로 제시한 것들을 연속적으로 다루었다. 강의 내용을 암기한 지식을 묻기보다는 학생들 자신의 사고와 감상, 상상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강의시간에 실시한 연극 탐방이나 영화 감상을 기독교문화라는 폭넓은 시각에서 일반화해내는 능력을 평가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1. 김성일의 [비워둔 자리]를 ‘장로의 처’ 관점에서 다시 구성하시오.(강의 사례2 참조)

2. 이송우의 [고산지대]의 등장인물 중 시위대의 선봉에 선 현실참여주의자 최찬익과 신비주의적 복음주의자 몽크 김,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입장에서 동료들을 설득하는 연설문을 작성하라.(강의사례1 참조)

3. 뮤지컬 [더 플레이]의 기독교적 메시지를 십계명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이와 같은 전달방식이 기독교 문화에서 갖는 의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강의사례 3 참조)

4. 영화 [예수 최후의 유혹]에 나오는 예수, 바울, 유다 등의 인물 성격묘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독교 영화로서 이 영화가 갖는 문제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라.

### ③ 보고서

이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부여한 보고서는 총2편이며, 성적평가의 30%를 차지한다. 학기초에는 '소명'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회고하고, 자신의 비전을 정립하는 개인 과제 1편을 제출하도록 했고, 학기말까지 동인(조원)들이 함께 수업에서 다룬 내용 및 자발적으로 기획한 내용으로 문집을 편집하는 조별 공동 과제물 1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일종의 신앙에세이로서 단순히 자신의 신앙경력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세우고, 이러한 결단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겪고, 생각한 것을 적으면서, 이러한 과거의 신앙체험이 어떻게 현재의 자신의 모습으로 이어졌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를 점검해 보도록 했다.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스 기니스의 [소명]을 소개하고, 관련 대담 기사를 나눠주었다.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평신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도록 했다.

---

7. 오스 기니스 · 이태후, [권두대담-소명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어느 것에나 있다], (복음과 상황), 2002.3.

### 3. 강의 사례 보고

#### ■ 강의 사례(1) -이승우의 [고산지대]

이승우의 [고산지대]는 한 신학교를 배경으로 한 단편소설로서, 현실 참여주의자인 최찬익과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몽크김이라는 두 신학생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화해를 통해 '종교적 수직의 축과 사회적 수평의 축을 교직함으로써 성과 속의 세계관을 통합'<sup>8</sup>한 작품이다. 신성과 인간성을 대비시킨 이 같은 인물 및 상황 설정은 작가의 대표작이자 한국기독교문학의 대표작의 하나인 [에리직톤의 초상]의 구도와도 연결된다.

일반적인 문학수업과 달리 발표자들이나 담당교수는 작가의 약력 소개나 이 작품의 문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미리 읽 어온 텍스트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며, 문제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진행을 맡은 동인들은 발표에 앞서 관례대로 세 개의 퀴즈 문제를 출제하였다.

- (1) 몽크김과 최찬익 사이의 공통점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쓰세요.
- (2) 마지막 장면에서 몽크 김에게 도움을 받게 된 최찬익의 나중 행적을 상상해서 소설로 써 보세요.
- (3) 당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몽크 김과 최찬익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토론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사람들이 믿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견해가 나왔고, 최찬익이 추구했던 정의의 하나

---

8. 김중희, [기독교 문학의 의미 영역과 작품의 실제], 황순원 외, [다시 부활을 기다리며], 윌컴, 1998, 278쪽.



님이나 몽크 김이 추구했던 하나님 중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하고 다른 쪽을 비난하는 태도야말로 균형 있는 신앙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발표자들은 양쪽의 믿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적 독선에서 벗어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과 다른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도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주어진 텍스트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해 이어쓰는 연습으로서, 작품 속의 상황과 등장인물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시각이 뚜렷이 드러난다. 토론 가운데 최찬익의 민중적 신앙관에는 변화가 없지만, 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동반자로서 서로 도와주는 사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 사건으로 최찬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몽크김에게도 변화가 왔으리라고 보았다. 당초 기대와 달리 창의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토론에 직접 참여한 담당교수는 80년대 민주화 투쟁과정을 환기시키며, 부상당한 최찬익이 결국 목숨을 잃고, 재단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뒷이야기를 이어보았다. 또한 몇 주전에 다룬 현길언의 [사제와 제물]에서처럼 그의 죽음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등장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과의 갈등은 더욱 커져서 이제는 학내 사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 동료의 희생의 순수성이 퇴색되는 것에 분노한 몽크 김은 최찬익의 죽음을 기리며 다시 한번 고독한 투쟁에 나선다. 이러한 줄거리로 속편이 만들어진다면 더 이상 '고산지대'가 아닌 '저지대'라는 이름으로 저 낮은 곳을 향한 예수의 행적을 상기시키게 될 것이라는 결말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학생들의 보다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수업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관이 몽크김과 최찬익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느 쪽의 열정도 가져보지 못한 채 이 소설의 화자처럼 방관자적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하였다.

이 대목에서 담당교수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부딪칠 문제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강의실을 책 속의 나온 도서관 앞 집회장으로 가정하고, 시위를 주동하며 학생들을 선동하는 최찬익쪽의 군중과 이에 맞서 세상과의 대결이 아닌 영적 투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 중 한 쪽을 택하여 앉도록 했다. 이어서 학생들은 집회장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연설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외쳤고, 토론의 열기가 오르자 한편에서는 '투쟁 투쟁' 하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한쪽에서는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심지어는 서로 몸싸움을 하는 포즈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토론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조차도 어느 발표 때보다 수업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 속의 세계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문학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체험이 단지 일회적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기말고사 때 역시 비슷한 문제를 출제하기로 미리 예고하고, 생각을 정리해 두도록 한 뒤, 소설 속 상황에 자신을 집어넣은 후 등장인물을 대신하여 자신과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는 연설문을 이번에는 글로 작성토록 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두 편의 답안 최찬익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다.

신학도여 일어나라, 신학도여 깨어나라

여러분, 영악하게 패배주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속에 세뇌되어서 무리하게 살아가려 하십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항복하시겠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항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한 패배주의, 노예의 안락에 안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신학자들의 죽어 딱딱해진 교리의 벽을 헐고 나와 저 슬픈 어부들과, 새리, 창녀의 삶의 현장에 같이 있고 싶어하셨습니다. 저 열악한 노동환경의 한복판에 뛰어 들어 노동자들과 함께 모래짐을 지고, 대패질을 하며 트럭을 운전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최루탄을 맞아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라도 던지고 싶어하십니다. 저 추악한 폭력 앞에 몸을 던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오늘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 같이 주의 뜻으로 투쟁합시다. 여러분 나갑시다. 싸웁시다. (이웅철, 학생)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내 이웃의 불쌍함과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병들어 가는 이 세대에 기도실에만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자가 어찌 세상에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중략)……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둡고 빛이 된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진리가 이 세상에 모두 전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를 보여주고 세상을 바꿔나갑시다.(성은주, 학생)

위의 이웅철의 답안은 최찬익이 보여준 민중신학적 입장을 재현한 것이다. 학내 문제에서 촉발된 대사회적 관심을 민중들과 고통을 함께 하

신 예수의 행적과 연결시켜, 개인주의적으로 내면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반성을 촉구하면서 투쟁에 동참하기를 호소한 글로써 젊은이다운 패기와 정의감이 돋보이는 글이다. 성은주의 글은 앞의 글에 비해 덜 투쟁적이면서 기독교인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고 강조하는 글이다. 기독교 교육의 포괄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가 되도록 학생들을 돕고 인도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속적이고 이익 권력 지향적인 사회에서 책임 있는 제자도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부르심이다.<sup>9</sup> 책임있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해하고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에서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태도가 한쪽으로만 쏠리지는 않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관에 따라 솔직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이 아니라 동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몽크 김의 입장에서 기술된 답안을 한편 골라 소개한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한 후 몽크 김이 꼭 다문 입술을 연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신지요? 여러분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울리진 못했지만 기도실에서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풀어보고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몇몇 형제들이 각목을 들고 와서 난동을 부린 일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일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 억울하고 분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러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

---

9. 해로 반 브루멜른, 앞의 책, 22쪽.

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그들이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그 친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배경이나 학식이나 말재주 같은 것은 여러분보다 모를 수 있겠지만 그가 얼마나 주를 위한 사랑과 민중에 대한 사랑이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중략)…… 저는 제대로 된 싸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총장이나 교문밖에 있는 의경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무얼하냐고요? 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당신의 생각으로 재단합니까? 왜 받을 응답을 믿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혈기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줄 없이 지구를 떠있게 하신 분이 그만 한 힘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대신 직접 죽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 생각처럼 그런 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세상을 이기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며 부르짖을 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길 원합니까? 기도합시다.(박윤경, 학생)

이와 같은 강의 방식을 통해 ‘기독교와 문학’ 수업이 문학을 통해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훈련을 시키며, 나아가 자신의 신앙적 태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자 했

다. 이럴 때 학생들은 자신의 작문 답안을 통해 일종의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다.

■ 강의 사례(2) - 김성일의 [비워 둔 자리]

김성일의 이 작품은 의사인 주인공 이장로가 마지막 재산인 병원을 교회에 헌납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에서 회상으로 돌아가 아내 김권사와의 결혼에서 의사로서 성공가도를 달린 길, 하나님을 만나 헌신한 생애, 자식을 잃고 반신 마비로 자기 몸까지 못쓰게 된 과정을 소개한다. 줄거리는 성탄절 저녁 팔이 부러진 응급환자를 수술하면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발표를 준비한 학생들이 출제된 문제가운데는 “이장로가 교회헌금을 내기 위해 병원을 판다고 했을 때 내가 김권사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 토론을 출발점으로 학생들에게 생각할 거리로 이 작품을 이장로 중심으로만 읽지 말고, 나머지 가족의 입장에서 읽어볼 것을 권했다. 이 작품은 기독교 소설로서 분명한 목적과 감동적인 결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이상적인 인물인 이장로의 입장에서만 일방통행적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나머지 가족들의 삶과 고민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장로의 처인 김권사의 삶을 전경화시킴으로써 소설의 의미는 보다 풍부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실험을 이미 학기초에 박지원의 허생전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패로디한 이남희의 단편소설 [허생의 처 분석을 통해 시도한 바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낯선 주문은 아니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는 ‘장로의 처’라는 제목으로 패로디 문제를 내기로 약속했다.

패로디는 모든 신성불가침한 권위들을 부인하는 탈권위의 의식을 보여주며, 기존 관습과 형식에 포함된 고정불변의 세계관과 인식론을 파괴하는 것이다.<sup>10</sup>

}} 이 과제는 작품 서사에 어울리지 않는 난태없는 기적적 결말에 과장된 감동을 받기를 거부하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독자 스스로 자신의 줄거리와 결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독자의 세계관과 인식론이 드러나는 작업이었다. 그것은 이 작품의 중심인 신에 대한 헌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방법론적 회의를 거치며 보다 깊은 신앙의 세계를 발견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한 것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즐겁게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학기말 문집에 실린 [홀룡하신 장로님의 딸]이란 글의 일부이다.

엄마의 지겨운 뉘두리가 시작되었다. 우리집에 또 팔개 남아있던가? 그 거지같은 병원도 팔 것에 속해 있던가? 그것을 팔 생각하신 우리 장로님께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다. 홀룡하셔도 정말 저 정도로 홀룡하시긴 어려울 것이다.

“어찌긴 아예 나랑 엄마도 내다 팔라고 해. 앉아서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 홀룡하신 장로님께 뭐라고 좀 해봐. 매일 그렇게 앉아서 당하지만 말고… 제발…” 이병준 장로님께서 또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계신가보다. 매번 새로운 사건을 계획하시는 장로님이 존경스럽다.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뿐인 부인이 거리에 내몰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뿐인 딸마저 팔고, 감사헌금을 낼 사람이 바로 우리 이병준 장로님이시다. 오빠가 죽었을 때도 아멘이라 하셨고, 내가 공장기숙사에 간다고 할 때도 아멘이라 하셨다.(백정훈, 학생)

이 글에서 딸은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대신 장로님이라 부른다. 여기서의 장로님이란 호칭은 거룩하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에 대한 풍자적 의미로 쓰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좀처럼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가 느껴진다. ‘홀룡하신’이란 수식어는 이러한 상황을 보다 냉소적으로 느

---

10.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254쪽.

꺼지게 만든다. 주의 길을 끝이끝대로 걸어가려는 일은 이렇게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칼을 주는 일인가. 가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는 동안 나머지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자 마침내 가족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길을 가야만 하는 고독한 신앙인의 한편에서, 그 거룩한 명분 앞에 불평이나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온 나머지 가족의 삶은 또 무엇인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희생에서 그만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가. 그 희생을 넘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글은 원전에서 암시한 가부장제적 사회와 거기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교회가 가장이 아닌 다른 구성원에게 주는 상처를 한층 진지하게 생각해 만든다. 그것은 꼭 가장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가족중의 한 사람의 열심 있는 신앙이 나머지 가족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순적인 상황이 여기에 있다. 해결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원작에서 있듯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감동적인 기적이 아니라 가족간의 이해와 사랑 그리고 신앙적 성숙에서 오는 것 아닌가.

이 점에서 다음에 소개하는 손정희 학생의 [장로의 처]라는 패로디 작품은, 남편과 아내의 대립을 넘어 자신의 내면적 신앙적 갈등으로 깊이 있게 전개시켰다. 원작과 달리 주인공 김권사가 시도하는 것은 남편 이장로가 아닌 주님과 대화이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욕의 고통처럼,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신의 가족에게 왜 자꾸만 고통이 찾아오는지를 따지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일기 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의 내면심리가 독자에게 솔직하고도 실감나게 전달된다. 일기장에 형식적으로 쓰는 날씨도 여기서는 주인공 김권사의 우울한 내면의 기상도를 표현하는 장치이다.



10월 17일 (날씨 : 비가 오는 스산한 날씨)

따르릉…… 계속 울리는 전화벨 소리… 분명 나의 남편일 것이다.

솔직히 전화 받기가 두렵다. 항상 내게 있어 전화벨 소리는 그의 일방적인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 시작 벨과 같은 의미이다.

나의 예상대로 나의 남편이다. “김권사, 나요.” 그는 항상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누구누구 엄마”라고도 부르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나는 권사일 뿐이다.

10월 19일 (날씨 : 가을 하늘을 볼 수 없을 만큼 흐린 날씨)

오늘 같이 그와 이야기한 날은 항상 나의 사랑스런 딸과 아들이 나를 울게 한다. 나의 하나뿐인 아이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의 아이들이 아니다. 나의 딸!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나의 아들…… 한쪽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나는 가까스로 부여잡는다.

주여! 왜 나를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지요. 남편 말대로 제가 업고 갈 운명인지요. 저의 죄인지요, 주님의 뜻인지요

10월 23일 (날씨 : 화창하고 맑음)

오늘은 내 마음이 환해질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로 하늘이 높고 푸르다.

그이와 연애했던 그 시절도 이랬다. 웬지 모를 추억 속으로 나를 이끈다. 그는 나를 어떤 여자로 느꼈을지 모르지만 난 그를 그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다가왔다. 자상한 면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선한 마음이 나를 매료시켰었는데……

지금의 그이를 보면 난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그 남자인지 혼동이 간다. 가끔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쳐본다. 그이가 이렇게 변한 건 내 탓일지도 모른다. 결혼하면 교회에 나가야한다는 조건만 없었어도, 아니 내가 교회만 다니지 않았어도…… 아마 그는 과거의 그 남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11월 5일 (날씨 : 비가 많이 옴)

다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랐다. 누가 찾아온 모양이다. 어떤 아이가 다쳐서 우리 병원에 올 것이다. 난 당황했다. 남편의 반응을 보았다. 그도 마찬가지로였다.

몇 분간의 망설임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고, 그 지나간 시간은 흘러갔다.

뭔가가 내 속에서 꿈틀거렸다. 뭔가가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았다.

정확히 짚을 수는 없지만 난 다시 내 일기를 쓰고 싶다.

새 일기를 말이다…….(손정희, 학생)

위 예문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결말부분이다. 김권사의 마음이 정리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듯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러나 믿음을 갖고 환자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남편의 모습을 목격했을 때의 일이다. 그녀는 비로소 남편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남편이 바친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치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물질적 재산이 아님을 깨닫는다. 마지막 장면의 기적은 남편만의 것은 아니었다. 간호원들 대신 곁에서 도와준 환자의 보호자들과 김권사 자신이 한마음이 되었을 때, 그리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그 순간 하나님은 환자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이장로 부부의 갈등, 김권사의 내면적 갈등을 치료한 것이다. 이 새로운 깨달음을 필자는 '새 일기'를 쓰고 싶다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여기서 일기란 무엇인가. 단순히 문장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원작과 더불어 읽고 쓰면서 학생들은 원작을 보다 깊이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원작에서의 질문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준비를 갖추 수 있다. 이와 같이 패로디 연습은 이미 완성된 원작의 권위나 작가의 일방적인 목소리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서의 학생들이 계속하여 써

가는 텍스트로써 신선한 문학경험을 가능케 한다.

■ 강의 사례(3) - 뮤지컬 “더 플레이” 공연 감상

강의 12주차인 5월 23일 ‘기독교와 문화’ 수업은 매주 목요일 저녁 서울 신촌에 자리한 창천교회에서 열리는 문화쉼터 공연을 탐방했다. 강의가 개설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가 문화적 사각지대인 용인에 소재하여 학생들이 유익한 문화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비록 거리가 멀어서 어려움이 따랐지만, 기독교문화와 관련된 문화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무리해서 준비한 특별 수업이었다. 강의실을 떠나 오랜만에 현장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먼 곳에 있는 행사장을 찾아오기를 꺼리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조별로 또는 개인적으로 제시간에 모여들었다. 개중에는 이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까지 함께 데리고 온 이들도 있었다.

이날 행사는 제8회 한국뮤지컬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한 남우주연, 남·여조연, 극본상 등 5개부분을 수상한 창작 뮤지컬 “더 플레이” 공연이었다. 문학 수업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연극을 포함시켰지만, 연극은 책이 아닌 무대에서 만나야 제격이었고, 적당한 기회를 찾던 중, 대표적인 기독교 뮤지컬 ‘더 플레이’를 문화쉼터에서 초청하여 무료로 공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시간을 맞춰 참석한 것이었다.

“더 플레이”는 십계명의 제 1계명인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주제를 가진 순수 창작 뮤지컬이다. “더 플레이”의 시작은 99년 초연된 “oh, my gods”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이어야 함에도, 헛된 신과 우상들에게 함몰되어 가는 현대인들을 풍자함으로써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바로 알아가게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연극은 기독교 뮤지컬로서 여느 일반 뮤지컬 못지 않은 관객을 동원하면서 뛰어난 흥행 성적을 올림으로써 문화선교

의 가능성을 입증했고, 더불어 예술성의 측면에서도 세상 문화 속에서 당당히 한국 최고의 뮤지컬로 인정받은 작품이다.”

이번 “더 플레이” 1막 투어는 주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떡볶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버스정류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1막은 등장 인물들이 모두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떡볶이’라고 말하게 되는 최면에 걸리면서 시작되는데, 최면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뽕!’ 소리를 다섯 번 연속 들어야 하는 것뿐이라는 설정으로 각본이 짜여져 있다. 배우들이 가장 사랑하는 ‘떡볶이’는 인터넷, 연예인, 여자친구, 불륜상대, 약 등이었고 주님께만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외치는 기도 속에서도 주님은 ‘떡볶이’가 되지 못했다.

공연 후 참석한 학생 일동은 근처의 분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떡볶이 파티를 하며, 공연 감상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는 퀴즈 대신에 “당신의 떡볶이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돌아가면서 답하도록 했다.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주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을 첫손에 꼽았고, 전공에 따라 ‘컴퓨터’, ‘디자인북’, ‘음악’, ‘애니메이션’ 등을 언급하기도 했고, ‘시간’이라는 대답이나 ‘떡볶이가 없다’ 또는 ‘지금 찾고 있다’라는 답변도 나왔다. 그리고 그 중에 두 명은 예수님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최우선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특별한 고민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만들었다.

공연 후에는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녹화한 테이프를 편집하여 다음주에 강의실에서 상영하였다. 또한 학기말고사에서는 공연 참관을 기초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기독교문화 운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

11. [아름다운 이들의 만남 문화쉼터], 창천교회 문화쉼터, 2002.5, 12쪽 참조.

한편 학기말에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연극 공연이 있었는데, [세상과의 만남 그 후]라는 제목의 공연을 준비한 '부활' 동인들은 소수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1회 공연인데도 오랜 기간 대사와 연기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전공에 맞춰 역할을 정하고, 소품에서 배경음악까지 정성을 다해, 공연을 감상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뜻밖의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배운 쪽은 스스로 공연을 준비한 학생들로서 대사를 반복해 외우고, 주제에 맞는 음악을 고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의 아픔을 헤아리며, 스스로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해보면 항상 학생들은 생각한 것 그 이상을 스스로 준비해 왔다.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는 것은 기회만 주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 4. 맺음말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학자 헤로 반 브루멜른이 요약한 대로, 기독교 교육은 삶에 대한 기독교적 안목의 기초, 틀, 의미를 밝히 드러내야 한다. 문학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삶과 인간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한다. 특히 기독교문학은 삶의 기초이자 인간의 삶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었는가 하는 결과를 따지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으나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토대로 그 가능성은 진단해 볼 수 있었다. “한 학기 내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전에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문학’이라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 더욱 눈을 떠야겠습니다.(박정

순)”와 같은 강의 평가는 학생들이 위의 목표를 향한 출발점에서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강의는 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 봤고 답을 찾아보려 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은 무엇인가? 직면한 이 질문에 우리 모두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대면했으면 합니다.(김두언)”에서 알 수 있듯 자아의 발견 및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질문은 문학의 과제이자 신학의 과제이다. 기독교 문학은 작품에 나타나는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능력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거리와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끝으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양식에 헌신하고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격려한다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데 ‘기독교와 문학’이 최적의 과목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수업을 마친 최종적인 결론이다. 한 학기의 수업을 통해 소중한 많은 것을 배웠다.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훌륭한 학생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과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해로 반 브루멜른,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IVP, 1996.
- 김성일, [비워 둔 자리], {다시 부활을 기다리며}, 윤컴, 1998.
- 이승우, [고산지대], {다시 부활을 기다리며}, 윤컴, 1998.
- 현길언, [사제와 제물], {다시 부활을 기다리며}, 윤컴, 1998.
- 김중희, [기독교 문학의 의미 영역과 작품의 실제], {다시 부활을 기다리며}, 윤컴, 1998.
-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 임영천, [기독교문학 논의의 관점에 대하여], 한국기독교문학평론가 협회, {기독교 문학 평론} 창간호, 2002.6.
- 오스 기니스·이태후, [권두대답-소명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어느 것에나 있다], {복음과 상황}, 2002.3.

---

## 김명석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연세대, 충북대, 방송대, 그리스도신학대, 아세아연합신학대 강사 역임

현 명지대 교수

저서 - [한국소설과 근대적 일상의 경험](새미, 2002)

[기독교문학과 현대평론](국학자료원, 2002), 공저

[1930년대 모더니즘 작가 연구](평민사, 1999) 공저

논문 - [김승옥 소설연구](연세대 박사논문, 2000) 외 다수